

내검남네?... '도로사이다' 이재명- '추격자' 이낙연 난타전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

이낙연측, '형수육설' 꺼내들며 '여성에 치명타' 자질 문제 공세 이재명 "원팀으로 인내 수준 넘어선 부당한 공격 반격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상호 검증 공방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

주춤했던 이 지사는 다시 '사이다' 공격본능을 장착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최근 지지율에서 탄력을 받은 이 전 대표도 이 지사를 향한 '본선 리스크'를 자극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신의 공세는 '검증'으로 규정하면서 반대로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를 향해서는 '네거티브 프레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상호 간 신경전이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내검남네'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 난타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위 탈환을 위해 맹추격 중인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신상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낙연계의 좌장 격인 설훈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해 "진문 결집도 있고, 본질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흡결과 약

점,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토론회를 해보니 기본소득이 허상이었다"며 "이 지사의 상표 자체가 훼손돼버리는 결과가 됐다"고 직격했다. 또 이 지사의 '형수 육설' 논란을 꺼내 들며 "여성들에게 치명타다. 어떤 여성들은 '겁난다'는 얘기도 한다"며 "기본적 자질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날 이 지사가 이 전 대표 핵심 측근의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을 깎집어낸 것을 두고 설 의원은 "그분이 돌아가셨다.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사이다보다 국밥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입장이 바뀌어서 안타깝다"며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지사는 협공을 받아 코너에 몰렸던 예비 경선 과정을 '전략실패'로 자인하면서 궤도수정을

공식화했다.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너무 방어를 안 해서 반격도 좀 당한 게 있다"며 "예를 들면 팩트를 왜곡해 공격하는 것이다. 아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많이 반성했다. 본경선에서는 좀 달라야 하고,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며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면 반격해야 한다. 발로 차면 막아야 되고, 손으로 때리는 것은 저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최근 이 지사가 소년공 시절 입은 팔 장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약점을 가리켜 '미필야당'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이 SNS로 전파된 것을 두고도 "지나친 네거티브"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열린캠프 핵심 관계자는 "원팀으로서 인내 수준을 넘어선 데 대해서는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의원단 차원에서 상대 후보들에 대한 모든 것을 검증할 방침이다. 자연스럽게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과도한 인신공격은



국회 세종분원 후보지 찾은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건립 기원 메시지가 담긴 해바라기 화분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네거티브가 이기는 큰길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진정 우리가 모두 함께" /연합뉴스

민주 경선일정 수싸움... TV토론 중단에 이낙연측 발끈

주자들 '9말10초' "11월" 엇갈려 '코로나 방역' TV토론 중단 뒷말 '이재명 편들기' "우리와는 무관"

더불어민주당의 뇌관이던 '경선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조정 수순에 들어갔지만, 대선주자들 간의 신경전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연기 시점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데 더해 TV토론이 연기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한 탓에 도처에 전선이 형성될 조짐이다. 당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경선 일정과 관련해 "디테일로 들어가면 6명 후보 측 의견이 다 갈린다"고 말했다.

애초 경선 연기론에 반대했던 이재명 후보 측은

전날 "연기되는 시점이 국감 이전까지였으면 좋겠다"며 연기에 동의했다. 캠프 관계자는 "10월 초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연기 반대 입장에 섰던 추미애 후보 역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2주기관만 연기하면 된다는 쪽이다.

반면 경선 연기파였던 김두관 후보 측에서는 아예 11월로 미루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정세균-박용진 후보 측은 연기에는 동의하면서도 시기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추미애 후보의 '시한부 연기'와 여전히 간극이 크다. 정세균 캠프 관계자는 "일단 중단했다가 방역 상황을 보고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결정 권한을 전 송영길 대표 측 관계자는 "조금 미룬다고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는지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상승세를 탄 이낙연 후보 측의

태도를 두고도 물밑 신경전이 오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낙연 캠프에서) 개인적으로 '일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말한 사람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연기에 동의한다는 입장이 변한 적 없다"며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당 선관위가 오는 19일과 22일 잡아 놓았던 TV토론 일정을 국회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취소한 것을 두고도 강력 반발했다.

이 후보가 상승세를 타자, 본 경선 TV토론 일정을 중단해 사실상 이재명 후보 편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이에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방역 상황 외에는 토론회 편성을 해도 되는 거냐는 의견은 논의 때부터 있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넉달만에 20%대로 하락...이재명과 접전

리얼미터, 윤 27.8% 이 26.4% 이낙연도 7.2%p 오른 15.6%

차기 대권 지지도에서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넉 달 만에 20%대 지지율로 내려앉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2036명에게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직전인 6월 21~22일 조사 때보다 4.5%포인트 떨어진 27.8%, 이 지사는 3.6%포인트 오른 26.4%로 각각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 2.2%포인트) 내인 1.4%로 줄었다. 직전(9.5%포인트)보다 8.1%포인트 좁혀진 것이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조사보다 7.2% 오른 15.6%로 3위를 차지했다.

우선 윤 전 총장의 경우 동일 조사 기준 지난 3월 29일(34.4%) 이후 30%대를 유지해왔지만 4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대로 내려갔다. 윤 전 총장은 부산-울산-경남(-12.0%포인트), 광주-전라(-10.7%포인트), 60대(-7.8%포인트), 중도층(-4.5%포인트) 등에서 주로 하락했다.

반면 이 지사는 같은 조사 기준으로 지난 5월 27일 기록했던 최고치(25.3%)를 경신했다. 특히 광주-전라(+17.2%포인트)와 함께 70대 이상(+5.8%포인트) 및 보수층(+2.6%포인트)과 중도층(+2.5%포인트)에서 선전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3.1%포인트)에선 하락했다. 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5.2%로 4위를 차지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2%로 5위에 랭크됐다.

이밖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3.6%, 유승민 전 의원 2.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1.7%,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1.5%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지난달 28일 사퇴 이후 17일 만이다.

국민의힘 박 유력 주자의 첫 입당 사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두에 선 야권의 대선후보 경쟁 구도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를 찾아 이준석 대표 등 지도부를 면담한 뒤 입당 행사를 가졌다. 최 전 원장은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하겠다"며 "은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입당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입당원서를 작성한 뒤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캠프 선대위원장에 4선 우원식 의원

권인숙 공동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4선의 우원식의원이 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캠프를 이끌게 됐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캠프 인선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전날 "불평등·불균형·양극화 시대를 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다"며 지지를 선언했고, 이 지사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

하다"고 환영한 바 있다.

열린캠프는 조정식 총괄본부장을 도울 총괄 부본부장에 김병기·김윤덕·김병욱 의원과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을 임명했다. 공동대변인은 전용기 의원, 김남준 전 경기도 언론비서관, 최지은 전 민주당 국제대변인 등이 맡게 된다.

공동상황실장에는 권인숙, 법률특별보단장엔 이수진(서울동작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